

기계의 유혹을 뿌리칠 때

이선엽 (02) 3772-2559
coreagod@goo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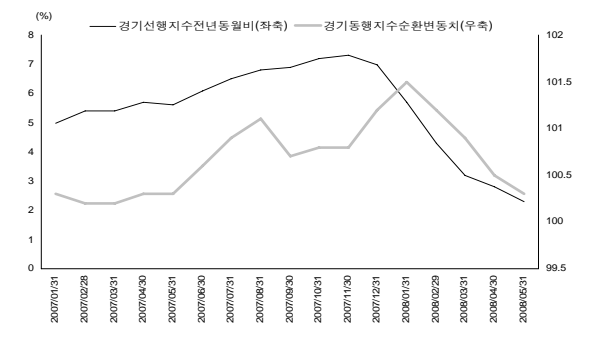
장세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

반등을 모색하던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홍콩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내증시가 폐장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선 것으로 아시아 증시의 장 중 반등 모색은 무위로 돌아갔다. 주말에 마감된 미국증시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요 지수가 7번 정도 반등 시도를 했지만 역시 상승 반전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눈앞에 직면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장세를 위협할 만한 악재가 산적해 있고, 동시에 악재가 해결될만한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미국의 신용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국내 경기하강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악재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악재 발생 원인과 과급 효과에 대해 시장의 전망이 나뉘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에 한몫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유가의 방향을 두고도 하락과 상승에 대한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3일에 있을 ECB(유럽중앙은행)의 금리결정 여부와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전망이 크게 다른데, 이들 악재가 향후 지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점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장세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 난감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다우지수가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악재장 진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미국증시가 약세로 전환될 경우 증시하락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감소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악재로 부상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장세 전망이 힘든 상황이다. 악재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일 지수는 선방했지만 프로그램에 기댄 흔적이 컸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차익거래자는 진입과 청산을 자주 반복할 수 있는 차익거래의 황금시장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 차익거래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의미는 결국 장세가 불안하다는 결론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차익거래 진입 시 상승 폭이 제한되고, 청산 때 하락이 커지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지수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현물 매수가 동반되지 않은 채 유입되는 차익거래로 지수가 반등할 경우 적극적인 매수대응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세대응으로 보인다.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자료:통계청, 국토농신한증권

KOSPI지수와 매수차익거래 추이

